

12일 그리스 운명의 날... 새 개혁안 최후통첩

유로존 “설득력 있는 구제금융 협상안 제시 안하면

EU 정상들 모여 그렉시트 문제 논의하겠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설득력 있는 구제금융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에는 4일간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리스가 유로존이 만족할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2일에 28개국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렉시트를 포함한 유로존에서의 그리스 운명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으로 4일간 뻑뻑한 일정...시간이 없다=앞으로 닷새동안 그리스를 둘러싸고 펼쳐진 일정은 전혀럼 유동적이지 않다. 과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며칠 후로 미루거나 잠정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를 낼 가능성은 배제했다. 유로존은 7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오는 9일까지 긴축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구제금융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 회의에 수정 협상안을 들고 나오지 않고 3~4개월 정도의 단기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2년간 구제금융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 유로존 정상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스 문제를 놓고 EU 28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정상들은 상황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나 탈퇴 문제까지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새 협상안은 긴축 더한 2~3년 구제금융안=그리스는 지난달 30일 제시한 ESM 2년 지원과 개혁안을 토대로 채권단의 우려를 반영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자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긴

축 내용, 다수의 개혁 프로그램이 담긴 2년이나 3년짜리 구제금융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이나 안보 예산 삭감, 부가세 인상 등 개혁조치를

소화해내야 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각에서 그리스의 개혁안은 지난 5일 국민투표에서 61%가 반대한 지난달 25일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개혁안 조치들에는 거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양측이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다.

◇EU, 그렉시트 시나리오 준비...낙관할 수 없는 협상=협상을 둘러싼 분위기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러 유로존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그렉시트에 대해서 다수가 제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해결책을 찾기까지 수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특별히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황 미사 100만명 운집

에과도르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7일(현지시간) 수도 키토의 200주년 기념 공원에서 열린 미사에서 “세계가 전쟁과 폭력, 개인주의로 분열되고 있다”며 “가톨릭교도들이 통합의 건설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미사에는 라파엘 코레아 에과도르 대통령 등 약 1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연합뉴스

“징용이 강제노동은 아니다” 판 말하는 일본

세계유산 정보센터 표기 내용 강제노역 참상 제대로 담길지 의문

“한국에 설명하고 한·일사이에 조율한 결과”... “더 논의 않겠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업시설에 관해 알릴 때 조선인을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할 생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일부 시설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노역한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할 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

상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관점에서 관련 정보를 작성할 것이라고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 대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러 국민이 있었

다’(→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the harsh conditions→)고 영어로 말한 것이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forced to work’를 원하지 않음에도 ‘일하게 됐다’(하타라카사레타)(동(人)변(動)かされた)는 표현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 “어디까지나 ‘대상자의 의지에 반해 징용된 일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며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이 징용 일반에 관한 언급일 뿐 징용을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런 관점에서 세계 유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계 유산을 알리는 정보센터 등에 담길 정보의 내용에 관해 한국 측과 조율할 것인지를 묻자 외무성 관계자는 그간 밝힌 입장이 “사전에 한국에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설명하고 한일 사이에 조율한 결과”라며 더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관점에서 제공한 정보로는 식민지 지배가 낳은 참혹한 상황을 제대로 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인식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美, 육군 2년안에 4만명 감축

“주한미군은 영향 없어”

미국 육군이 앞으로 2년내에 걸쳐 국내·외 기지에서 병사 4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일간 USA투데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육군 소속의 군속도 1만7000명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육군 규모는 2017회계연도 말까지 45만 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조지아 주 포트베닝 기지의 여단과 알래스카 주 엘멘도르프-리처드슨 기지는 4000명 규모에서 105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미 육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단행되는 이 같은 계획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워싱턴D.C. 군사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병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감축은 예견됐던 것이다. /연합뉴스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한창 수행하고 있었을 때 육군 규모는 57만여 명까지 늘었고 이에 따라 파병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귀국한 후 육군은 감축 계획을 세웠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서 육군은 또 10월부터 시퀀스스레이션(자동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이와 별도로 3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이 펼쳐지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추가 감축이 따를 여지도 있다.

육군 수가 이처럼 조정되면 현재의 배치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파병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일왕 면책이 일본 우경화 초래”

中 관영출판사 출간 ‘항일전쟁사’ 지적

중국 관영 출판사가 일왕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이 일본 우경화로 연결됐다는 분석을 담은 책을 펴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인민출판사가 지난 5월 출간한 ‘중국 항일전쟁사’는 태평양 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비교적 공정했지만 결함이 분명히 있다”며 “히로히토(裕仁·1901~1989) 일왕은 일본 침략 전쟁과 일본군의 잔학 행위에 대해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이어 “히로히토는 (침략전쟁과 잔학행위를) 저지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도쿄재판에 의한 ‘일왕 면책’이 “일본의 우경화”와 같은 “일련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가 석방돼 총리직에 오른 일 등을 거론하며 “전범을 감싸고 죄를 용서한 것이 군국주의 사고의 부활에 온상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강제노역 발언 뒤집는 日 핏수 폭로”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일본은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자마자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표리부동한 이중 플레이 전술에 속아 넘어간 셈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강제노역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직후 일본 정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8일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인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7곳을 포함한 23개 산업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연합뉴스

박 단장은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1940년대 몇몇 시설에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라고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더니 등재 결정이 나자 10여 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말한 내용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반크는 일본 정부가 등재에 앞서 약속한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해 나갈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 3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연 뒤 8월 16일까지 세계인을 대상으로 일본의 ‘핏수’를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돈 · 빌려 주실 분!

- ▶ 3억원 이상
- ▶ 연 12% 확정 이자
- ▶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 연 3억 순수의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